

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대하여

정확한 이해의 필요

◆우선 대전제로서의 사항

- ◆원자로 자체는 정지해 있음. 즉, 핵반응은 일어나지 않는 상태.
- ◆노심의 연료가 일부 용해되어 있어 봉산수 혹은 바닷물을 넣어 온도를 내리고 있음.
- ◆수소폭발의 위험성은 아직 있음.

◆이번 폭발은

- ◆수소폭발 - 연료가 냉각되지 않고 열이 높아져 연료를 넣는 금속관의 산화반응에 의해 수소가 발생하여 건물로 흘러 들어 폭발한 것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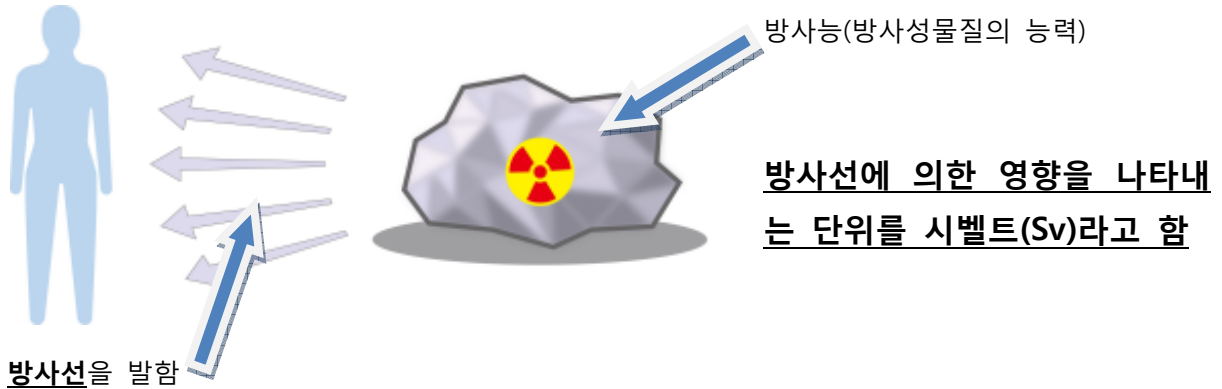
그러므로, 핵폭발이 절대 아님!!!

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.

◆수소폭발의 결과

- ◆격납용기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작업한 결과 수소폭발과 함께 방사능이 확산되었음.
- ◆이 방사능 확산은 일시적인 것이지만, 이와 같은 작업에 의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음.
- ◆하지만 방사능에 의한 피폭의 문제 없음

◆방사능이란 무엇인가?



◆방사선에 대하여

- ◆방사선은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이 있음 →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같음 →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위 검사, 이 치료 등에 사용되는 X-레이가 한가지 예

◆피폭이란 무엇?

- ◆방사능을 가진 물질의 미세한 파편이 몸에 묻었을 때 받게 되는 방사선의 양(시벨트)
- ◆그러므로 물로 씻어낼 수 있음(제염이라고 함, 본인도 여러 번 경험이 있습니다.)

◆이에 대한 대처는 화분증(꽃가루 알레르기)의 대처방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음.

◆이외에 피폭에 대하여

◆방사성물질이 의복에 조금이라도 묻으면 '피폭'이라고 함.

◆하지만 이 방사성 물질을 입으로 흡입하게 되면 몸 안에 쌓이게 되므로 좋지 않음(이를 내부피폭이라고 함).

◆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화분증 대처용의 마스크만으로도 충분히 대처 가능.

◆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피폭이라고 하는가?

◆이번 방사선량은 일본의 기준으로 1년 분을 1시간에 피폭한 정도의 양.

◆하지만 이것이 몇 시간, 며칠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는 없음.

◆이번에는 위 검사용 X-레이의 2배의 양이지만 몇 시간 동안 계속 X-레이를 쬐지는 않음(치과용 X-레이는 이의 10배)

◆피폭양 참고 비교

◆나리타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로 왕복했을 경우 어느 정도 자연방사선을 피폭하는가?

◆왕복 200마이크로시벨트 피폭

◆최악의 상황은 어느 정도?

◆이번 수소폭발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.

◆방사능의 확산에 의한 오염 가능성은 현재 발전소 20km 반경 이내.

◆결론

◆발전소 근처로 가지 않는 이상 문제는 없음

◆발전소 근처에 있더라도 마스크를 하고 긴팔셔츠를 입고 귀가 후에는 손을 씻고 셔츠를 세탁하면 괜찮음.

◆도쿄에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됨.

◆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.